[로스쿨 합격기]

타산지석

황선희

- 대구 상인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Ⅰ. 시작하며

합격 수기를 쓰기에 앞서 저의 부족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합격의 기쁨을 주신 학교 측에 고마움을 표하고, 본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합격생들에 비해 저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합격의 방법을 전해드릴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보다 로스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이나 아쉬운 점들이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타산지석으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로스쿨 준비를 일 년 내내 제가 열심히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때 이런 저런 부분에서 좀 더 준비를 했었더라면 많이 불안해하지 않고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스쿨 입시는 크게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준비해야합니다. 정량적인 부분은 리트 점수와 토익 점수, 학점이 있을 것이고, 정성적인 부분은 자기소개서와 면접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각종 봉사활동, 수상경력과 같

은 것들입니다. 저는 정량적인 부분이 매우 취약해서 비정량적인 부분에 더 비중을 두고자 했지만 봉상활동이나 대외 수상경력 같은 경력이 전무하여 많이 걱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입학 담당 교수님들은 학부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대외활동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 저처럼 특별한 경력이 없으신 분들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Ⅱ. 지원동기

로스쿨 지원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면서도 법대 학부와 인문대 사이에서 많은 고민 했었고, 법 공부에 미련이 남아 학부를 다니면서 몇 년간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께서 겪으셨던 노동자로서의 억울한 일들을 목격하면서 법적인 조력이 사회 각 층에 필요하다는 신념으로 법 공부를 시작했지만 여러 번 사법시험에 낙방하였습니다. 게다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사법시험 선발 인원도 줄어들면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로스쿨에서 이루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로스쿨에 지원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입학까지 그리 쉽지 않은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법시험에서 1차 합격도 못한 경력은 로스쿨 진학에 그리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리트나 영어 점수 그리고 학점이 사법시험을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과 같은 선에서 비교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Ⅲ. 정량적 요소

1. 리트

저는 리트 성적 결과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상세한 점수를 공개하기는 민망하지만 우수한 성적은 절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리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학원을 다니지는 않았고 추리논증 과목이 혼자 공부하기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인터넷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는 가장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을 택했지만 그마저도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철학과에서 배우는 기호논리학과 같은 것이 매우 어려웠고 문제에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풀어낼 수 있을지는 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략의 강의를 듣고 감을 잡은 다음에 기출문제 위주로 저 혼자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리트 고득점자들에게 이야

기를 들어보면 학원 강의보다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방법은 정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만든 모의고사 문제는 풀어보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구지 풀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원에서 만든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준비과정에 많이 낙심하고 그러다보니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리트 준비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스터디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기출문제를 좀 더 깊이 다루지 못한 것입니다.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저는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리트문제도 풀어보았는데, 학원에서 만든 문제를 풀면서 많이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풀이에 매달려서 기출 문제 풀이를 좀 더 밀도 있게 다루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 매달렸던 수리논증의 문제들은 학원에서 만든 문제처럼 매우 까다롭고 난해하게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에 집착하지마시고 그 시간을 기출 문제 풀이에 투자하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출 문제를 풀이하고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은 혼자만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사람들의 방법을 보고 배우는 것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문제 풀이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서 스터디에 참여하시길 권합니다. 저는 스터디를 하지 않고 혼자 기출 문제를 풀어서 저의 문제 풀이 방식 외에 해답에 나오는 방법만 알고 있었고, 그런 몇 가지 방법만 추구하다보니 다양한 유형의 문제 풀이에 능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탓에 리트 시험에서 그다지 고득점을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터디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좋고 주변에 지인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 풀이를 잘하시는 분들이 스터디 내에 많은 것이 좋습니다. 그 분들과 문제 풀이 방법을 공유하시고 자신이 잘 풀어내지 못하는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풀이 방법을 꼭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풀이 방법이 비효율적인데도 다른 사람들의 좀 더 효율적이고 시간을 아낄 수 있는 풀이 방법을 따라가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태도는 절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공인영어성적

사법시험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영어 공부를 매우 소홀히 해왔던 저는 공인영어성적도 사법시험을 치르기 위한 최소 점수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공인영어성적을 끌어올리는 과정은 매우 어려웠고, 실제로도 그다지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공인영어성적은 종류가 무엇이 되었건 미리 점수를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쉽게도 로스쿨이 원서접수 전 마지막으로 인정하는 9월 공인 영어 시험 기일에 임박해서 열심히 준비했던 탓에 그리 높은 점수를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임박해서 영어 공부를 하면 불안하기도 하고 시험장에서도 당황하기 쉬워 고득점을 하기에 불리합니다. 특히 듣기 부분에서 불안한 탓에 마음의 평정심을 잃으면 많은 문제를 놓치기 쉬우니 꼭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늦어도 6·7월 여름에는 점수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리트 시험공부에 매진할 때에도 영어가 발목 잡는 일이 없을 것이며, 리트 문제 풀이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학점

로스쿨 지원에서 학점은 가장 변동되기 어려운 정량적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트를 준비하는 1년간 학부 수업을 착실히 듣는다는 마음가짐으로 해나가는 것 외에 별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좋지 않은 학점을 받은 과목 몇 개를 재수강하여 전체 평점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졸업 요건을 갖추기 시급한 저 같은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요즘 1,2학년들은 학점 취득을 위해 학과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하기 때문에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 이 분들에게 밀리기 쉽고 좋은 학점을 얻기가 예전보다 어렵습니다.

저는 학점이 저의 발목을 잡아서 로스쿨 합격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학원에서 하는 로스쿨 입학 관련 상담에서도 학점이 매우 치명적일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상담을 해주신 학원 관계자들은 그 때문에 학원 종합반에 등록하여 리트 대비를 할 것을 권유했지만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형편도 되지 않았고 학원 강의에 대해 그리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강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리트 공부는 기출 문제 위주로 하면서 스터디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풀이 방법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구지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처럼 학점이 낮으신 분들은 학원들이 종합반 등록이나 학원 강의 수강을 권유하는 것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로스쿨 교수님들은 요즘 학부의 학점이 어느 정도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계시며 입학 심사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점이 자신의 합격이나 불합격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미리부터 걱정하면서 한 학기를 더 다녀서 여러 과목을 재수강하여 전체 평점을 끌어올리기 보다는 이미 정해진 학점 외의 다른 부분인 리트나 면접

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Ⅳ. 지원 로스쿨 결정

로스쿨 입학 원서를 쓸 때 쯤 되면 이미 정해진 점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리트 점수와 공인영어성적 그리고 학점이 어느 정도인데 어떤 로스쿨이 자기에 적당할지 인터넷을 뒤져가며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인터넷 까페 등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는 유익한 것이 그다지 없습니다. 인터넷 정보는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경우도 많으니 거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합격하신 선배들의 직접적인 경험담을 참고로 하거나 로스쿨 설명회에 참석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리트 시험이 끝나고 전국 로스쿨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로스쿨 설명회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중앙대학교 로스쿨에 지원하기로 결심한 것도 합동 로스쿨 설명회에서 얻은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학교마다 리트, 영어, 면접 등을 반영하는 비율이 다르고 정량적인 요소나 정성적인 요소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는지 그 가치관도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학부 성적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어떤 학교는 학부 성적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기도 합니다. 또 리트 시험 점수가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게 될 확률이 높은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리트 점수를 지원의 최소 한계치로 설정하고 입학하고 싶은 학교를 결정해야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인터넷에서 흘러나오는 소문들을 믿지 마시고 입학을 담당하는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정보를 신뢰하여 자신이 지원할 학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Ⅴ. 정성적 요소

1. 자기소개서

지원할 로스쿨을 결정한 후에 그 학교에 맞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는 당해 로스쿨에서 추구하는 이념과 특성화에 맞게 서술하면서도 자신의 신념과 법조인이 되고자하는 의지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써야 합니다. 일반적인 공익을 위한다는 신념 혹은 자신의 전공에 맞는 장점을 살리겠다는 취지도 자기소개서를 쓰는 좋은 방법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쓰기 때문에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어떤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이한 경력사항들이 많은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자기소개서가 항상 뒤쳐질 것이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연수 경험이라든지 각종 수상경력을 가지신 분들은 유리한 점이 많지만 저처럼 그러한 대외 경력이 전무하신 분들도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를 개인적인 경험담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부분에는 일반적으로 자신을 알리기 위해 성장과정이나 학교생활 등을 서술하는 것도 있지만 봉상활동이나 수상경력, 사회활동에 대한 사항도 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으로 쓸 만한 것이 전혀 없었고, 수상경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감점당할 것을 각오하고 그 부분을 모두 공란으로 남겨두었지만 사실상 그렇게 불이익을 겪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지원에 임박하여 일부러 하는 봉사활동을 자기소개서에 적어 제출하면 교수님들이 자기소개서에 쓰기위해서 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며, 거의 가산점을 받지 못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예전부터 해오던 봉사활동이 아닌 로스쿨 입학을 위해 한 것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수상경력은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저처럼 전혀 없으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수상경력이 대단하신 분에 비해 가점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그것이 입학의 당락을 결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를 것이지만 대외 경력 관련 점수는 기본점수가 어느 정도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학 설명회 등을 통해서 이러한 경력 사항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알아보고 자신이 경력사항이 많으면 그것을 많이 반영해주는 곳으로 지원을 결정하시고 저처럼 경력사항이 없으신 분들은 반영을 적게 하시는 곳으로 지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력사항들은 나이를 고려하여 반영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시지 않은 학부 졸업자라면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2. 면접

면접은 자신이 지원할 로스쿨이 취하는 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하며 거기에 맞춰서 모의 연습을 많이 해보아야 합니다. 학교마다 면접의 방식이 다른데 어떤 곳은 개별 면접을 하고 또 어떤 곳은 집단 토론을 통한 면접을 합니다. 또 제시되는 지문을 풀이하는 심층면접과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기초로 하여 개인적인 인성과 가치관을 심사하는 인성면접을 반영하는 비율, 면접 시간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할 학교가 결정한 면접 형태와 반영 비율, 면접 시간을 사전에 잘

알아두고 거기에 맞춰서 면접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주변에 정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인터넷을 통해 면접 정보도 얻었는데, 대부분 잘못된 정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면접 정보도 해당 학교가 제공하는 입시요강이나 입학설명회 자료를 통해서 얻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잘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스터디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과 모의 면접을 진행해보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리트 준비를 하면서 스터디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고 면접 준비는 혼자하기 불가능해 보여서 스터디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터디원들과 쟁점들을 선정해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모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실전에 대비하는 것도 좋겠지만 연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전처럼 하는 것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면접 준비를 하면서 기본교재로 학원 강사들이 출판한 유명한 책을 많이 읽게 되는데 사전 지식을 기르기 위해 그러한 독서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슈가 되는 쟁점이나 토론 주제를 선정하는데도 이런 시중의 책들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면접시험에서 항상 이런 문제집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과 말하기 능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신념은 어떠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반대 생각은 어떠한데, 자신의 생각이 왜 정당한지 피력하는 것이 면접의 핵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토론은 면접 책 몇 권을 읽는 것보다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Ⅵ. 끝내며

로스쿨 생활은 생각보다 매우 바쁘고 힘든 것 같습니다. 뛰어나신 분들이 주변에 많아서 배우는 점도 많은데 도태되지 않을까 걱정도 많습니다. 로스쿨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준비 시기에는 주변 분들에게 많이 배우기도 하지만 경쟁하는 과정에서 불안하고 리트 점수나 영어 점수가 낮게 나와서 떨어질 것을 각오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입시는 어느 한 부분의 점수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과 법조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신념에 집중하셔서 열심히 하신다면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모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